광야 여정과 하나님 명령

민수기 33:38~56

【인도자를 위한 예화】

1980년대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강렬한 이 문장은 당대에 크게 히트했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선택이 있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려 있다.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도 선택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 30:15).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가룟 유다는 은전 30개를 선택했고,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보여 주는 모습이 다르다. 미움이 아닌 용서를, 완악함이 아닌 겸손함을, 저주가 아닌 복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다. - 김은호, 「지친 날들의 은혜」(두란노)

오늘의 나를 만든 인생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경 이해하기】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 기록된 장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 줍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머물렀던 지역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15절에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6~36절에는 시내산에서 신 광야의 가데스까지, 37~49절에는 신 광야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총 42개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50~5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며,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해 5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38절) 광야 여정 끝에 그들은 어디에 진을 쳤나요?(48절)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광야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요 대제사장인 아론은 므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 때문에 모세와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

다(20:22~29).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기 직전에 머문 곳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출발지인 라암셋(5절)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에 이르는 광야 훈련을 통해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졌습니다.

적용과 나눔 I

나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기억에 남는지 나누어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도한 것은 백성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음을 보여 줍니다(20:29).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두려워할 때 성경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며 격려해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고 위로해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우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나요?(52~ 54절)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55절)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긴 우상과 산당을 허물고, 지파의 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 주십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완전히 멸절하고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제비를 뽑아 정복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순종에는 복이, 불순종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적용과 나눔 II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나와 신앙 공동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가시’ 또는 ‘찌르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가나안 원주민을 멸하고 우상과 산당을 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짝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농경 문화와 우상 문화에 대한 동경심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의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은 결국 내게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단호히 끊어 내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